

국내 최초 유기축산 농가 인증 획득



1.



안전먹거리 지킴이...유기농 명인을 만나다

(8)담양 다란팜 대표 '송홍주 명인'

하루 5-6천개 유기농계란 대부분 수도권으로 판매
유기사료와 야생찾임 활용...닭장은 모래·벚꽃 관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한 유기 축산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담양군 무정면에서 다란팜을 운영하는 송홍주(71)명인.

송 명인은 이곳에서 지난 1992년 양계업을 시작, 2004년 국내 개인농장 최초로 유기 축산인증 농가 인가를 받았으며

2009년에는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 같은 해 농림축산식품부 신지식인 22호로 지정됐다.

처음 시작과 달리 현재는 4만9천586.7㎡(1만5천평) 정도의 땅에서 닭도 많이 늘어난 8천 마리에서 매일 5-6천개의 계란이 생산되고 있다.

지금도 20여년 간 변함없이 친환경 농

법을 실천 중이며 유기농 쌀 등의 유기 사료만을 고집해 사용한다.

명인의 닭같은 시중 일반란 보다 비싼 가격에 형성돼 있지만 좋은 품질 덕분에 전체 거래의 70%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에 택배로 직거래 되고 있다.

특히 송 명인은 닭에게 주는 사료에 온정성을 쏟았다.

농장 이름이 다란(茶卵)인 것처럼 뽕, 솔잎, 은행 등 야생 찾임을 발효시켜 닭에게 먹이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닭장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하고 내부 바닥은 모래와 벚꽃, 왕겨로 돼 있다.

이러한 방법은 유익균이 서식하기 편한 구조기 때문에 다른 양계농장에 비해 악취 발생이 현저히 적다.

이 같은 친환경 농법을 지속 유지해 온 결과 지난 2011년에는 축산(유기란)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전남도 유기농 명인' 제9호로 지정됐다.

계란은 흔히 시중에서 완전식품이라고

- 1.다란팜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기란
- 2.농장입구앞이정표
- 3.유기농계란에 대해 설명하는 송홍주명인 /안태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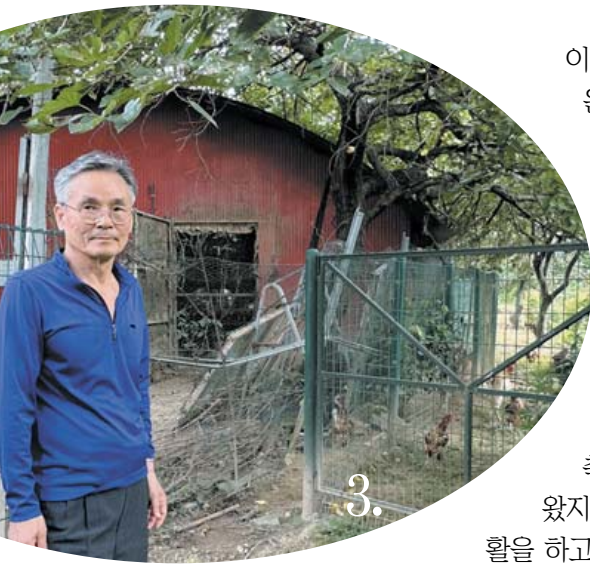


2.

부르며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미네랄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일반 달걀과 유기농 달걀의 성분 차이는 크게 없으나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전한 먹거리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명인의 유기농 달걀이 현재는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 자



3.

리까지 오기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 일반양계농에서 자연 양계농으로 넘어올 당시는 판매할 시장도 없었고 약품도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닭이 죽어 나갔다.

어려움에도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를 포기하지 않아 지금은 인터넷 판매, 직거래, 마켓컬리 등 다양한 판촉 경로를 찾아내 극복했다.

이러한 송명인의 앞으로 계획은 꾸준히 유기농을 실천해 나가 유기 축산농가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다.

송홍주 명인은 "부친이 순천에서 양계장을 운영해 어릴 적부터 닭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며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자식들도 축산과 동물 관련 학과를 나왔지만, 현재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후계에 대한 생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식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지만 자식들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나타나 유기 축산농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 유기농업을 지키며 앞으로는 더 많은 축산농가가 유기축산업을 실시해 건강한 축산업을 선도하는데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며 안전한 축산업 문화 정착을 소망했다.



전남쌀 수출 1천t 달성 속도낸다

도해외상설판매장 활용 백세미 등 3개국 수출 본격화

전남도가 국내 쌀값 하락에 따른 위기 극복 긴급 대책으로 전남 해외 상설 판매장을 통해 전남쌀 수출을 본격화하는 등 쌀 수출 1천t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곡성 석곡농협은 대표 브랜드쌀인 '백세미'와 '잠자리가 노닐던 쌀'을 베트남과 오스트리아, 호주 등 3개 국가에 총 50t 규모의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선적은 해외 상설판매장 국내 운영사인 농식품 수출 전문업체인 ㈜

골든힐과 석곡농협이 10월 말까지 80t의 쌀 수출 계약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잠자리가 노닐던 쌀' 품종인 새정무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전남의 토지와 재배 여건에 맞춰 7년에 걸쳐 개발한 고품질 쌀이다. 쌀알이 투명하고 단단해 밥을 지으면 찰기와 윤기가 흐르며 식감이 쫄득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어 전남 쌀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국내 쌀값 하락에 따른 농

가소득 감소와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쌀 수출 생산자에게는 수출용 포장재·팔레트 등 기자재 비용을 지원하며 수출 물량에 대해 1kg 당 1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수출은 전남쌀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기회이자 한국쌀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전남쌀이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등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지족·남면어촌계, 폐어구 수거 '최우수'

해수부 경진대회 어촌계 자발적 참여...해양폐기물 줄이기 효과

전남도는 18일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모두모아 경진대회'에서 고흥 지족어촌계와 여수 남면어촌계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인 최우수상과 상금 50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폐척추 어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어업인과 관련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근 10일간 진행됐다.

전국 42개 어촌계·단체에서 총 2천7

명이 참가해 60t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전남에서도 4개 어촌계 195명이 참가, 총 7t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사진>

이번 경진대회는 폐어구의 효과적 수거와 관리를 위해 기획된 캠페인으로 어촌계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치된 폐어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긍정적 사회여론을 형성하는데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김현미 전남도 해양환경과장은 "어



업인과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해양폐기물을 줄이는데 앞장서도록 어업인 교육 강화, 연안 정화 활동 정례화, 민간 해양환경단체 활동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농기센터 '마음을 가꾸는 농부' 발달장애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광주농업기술센터는 18일 "10월2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에서 '마음을 가꾸는 농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총 27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지역 장애인직업 재활시설과 주간 활동(보호)센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발달장애

인의 긍정적인 정서 증진과 신체·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치유·직업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하반기에는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참여자들은 직접 텃밭 상자에 흙을 채우고 작물 씨앗·모종 심기, 물주기 등 치유 텃밭 가꾸기와 오아·포고버섯 등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치유 활동을 한다. <사진>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농촌을 통해 정신적 치유와 건



강 회복을 돕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치유 농업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강기자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재!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1일차



2일차



4일차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일차



4일차



5일차



7일차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 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

CMYK